

신앙의 반석이 되는 믿음 * 첫 번째날 *

<믿음의 정의>

* 믿음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늘 앞에 첫 번째 기본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첫 번째 조건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고 믿음의 조건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앞에나, 내 앞이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나, 형제와 형제 사이, 부자간, 스승과 제자 사이, 한 나라의 정치인과 백성 사이에서도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신용이 떨어지게 되고 신용이 떨어지니까 인생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모든 것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용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가다가 신용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 믿음,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꼭 가져야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자격자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은 믿음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불가능이 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 믿음은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믿음은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행할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이코 내가 하기는 하지만 안 될 것을 알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될 것을 왜 합니까? 하지 말지. 사람이 벌써 긍정을 할 때는 반 이상 화살이 날아간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불의를 믿고 갈 때도 일이 성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의를 믿고 행하는 것은 행하는 만큼 실패하고 깨어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와 같은 꼴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소망입니다. (히11: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소망이라는 말씀은 믿음에 따라서 우리 앞에 일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바라고 원하면 그것이 반드시 오는데 그것을 잡고 다스리고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는 실존이 따라야 합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먼저 믿음으로 근본을 보고 그 후 눈이 밝아져 뜨게 되었고(마9:29),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도 역시 믿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눅7:9)

<믿음이 생기려면>

1. 믿음의 표준은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엡 3:17)

믿음이 없는 것은 어째서 그럴까? 아무리 새벽제단을 많이 쌓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표준은 기도도 아니고, 어떤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다리가 닳도록 뛰어다니면서 교회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니고 다만 믿음에 대한 표준은 오직 그 시대의 보낸 섭리사의 주인을 믿는 것에다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인지 믿는 믿음이 있었으면 벌써 능력이 나가고 권능이 나가고 세력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2. 믿음은 들음에서, 아는데서 생깁니다. (롬10:17)

여러분들이 일반 교회에 다닐 때보다 믿음이 대단해졌지요? 말씀을 들으면 요동이 없거든,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이 생겨지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제대로 알아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든 것을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으로 살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지켜보십시오. 심판하기 위해서도 지켜보고 상주려고도 지켜보십시오. 행한대로 갚아주기 위해서라도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이 못 지켜보면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라도 지켜보십시오. 보지 않고는 심판할 수가 없고 알지 않고선 하나님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자꾸 체험을 해야 믿어집니다.

말씀의 능력이나 믿음의 능력 같은 모든 능력들은 종합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할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훈훈해지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난롯불하고는 다릅니다. 시골에 있을 때 난롯불 옆에서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난로를 열어보니까 불은 다 꺼져 있었습시다. 그리고 산에 가서 기도할 때는 확실히 성령의 능력을 느낄 수가 있었습시다. 찬방에 있으면 불을 갖다 놓았나 안 갖다 놓았나를 금방 느끼듯이 성령의 뜨거움도 확실히 느낍니다.

(믿음의 사람들)

바울은 한 마디로 신앙이 통통 영근 사람입니다. 곧 곡식의 알곡이 가을이 되어 통통하게 영글고 나무의 열매가 무르익은 듯한 인상을 주는 사람입니다. 어디 흠집이 별로 없으며 바늘이 쏘셔도 들어갈 곳이 없는 약점이 없는 사람이며 확고부동한 인생을 살아나갔던 찾아보기 드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둥을 가지고 전봇대를 가지고 쏘셔도 흠집이 남아돌아 갈 정도의 사람들이 바울을 심문했던 그 때를 생각할 때 말이 안 나옵니다. 바울은 어떠한 환경, 위치, 처지에 들어갔을 지라도 그때그때마다 처세를 확실하게 해 나가고 분명하게 이루어 나갔습시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확실한 신앙관, 분명한 진리관에서 온 처세인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믿음과 말씀관이 확실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람도 털 타게 되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흔들리고 어찌 할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면 역사의 앞선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죽대가 강하고 주관이 확실하고 분명해야 따르는 사람도 확실하게 또렷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흑백이 있고 동서남북의 방향이 분명코 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면 공산주의, 민주주의면, 민주주의, 흑백이 있어야 되겠습시다. 바울은 어떠한 환경도 요리를 잘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궁핍과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께서 능력만 주신다면 못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 했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의 전서를 통해서 바울의 신앙관이 흘러가는 역사를 보면 마치 밀림 속을 뚫고 가는 밀림의 왕자 같은 입장입니다. 계속 밀림을 뚫고 가고 뚫고 가고... 또 뚫고 갔습시다. 혹은 저 사하라 사막을 자동차로 달리는 사람과 같습시다.

<생각해 보기>

* 믿음은 신앙의 기본이라 했습니다. 신앙의 기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근본된 신앙의 기본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를 적어보세요!

* 그럼 믿음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믿음의 표준은 OO께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표준을 OO께 두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의 반석이 되는 믿음 * 두 번째날 *

믿음이 흔들릴 때

1. 믿음이 약해질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마21:22)

자기가 비상적인 상태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추락하는 비행기가 착륙지점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비상적으로 착륙할 때에는 자기가 믿음의 닻줄을 잡아 나가야 합니다. 본인이 일단 기수를 잡고서 방향을 돌려 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믿음에서 추락할 때는 순식간에 쪽 내려잡니다. 그때는 기도를 꼭 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이러고 몇 마디만 해도 그 자체의 마음의 추락 상태는 비상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2.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마 14:31)

이스라엘이 더 이상적인 역사를 맞보지 못하고 더 이상적인 세상과 사회가 일어나지 못하는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절대자 그리스도를 믿지 못 했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했는가? 그들은 육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지를 못했습니다. 만일 사명적으로 보았다면 믿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3.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합니다.(행2:21)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성서에 보면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불렀습니다.(대하 18:31)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야 됩니다. 사람의 이름을 대면 그 사람도 입장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이름을 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켜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4. 육을 중심한 믿음이 아니라 영을 중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요일 4:2)

믿음은 우리 신앙에 절대적인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없는 사람에게는 행실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육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육은 무익하고 변화무쌍하니까 그저 기분이 좋아서 확 하지 말고 보다 내적으로, 보다 정신적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다 강할 것입니다. 사실상 말씀의 도표에서 보았지만 보다 정신적인 세계도 변화무쌍합니다. 마음도 흔들립니다. 정신도 흔들립니다. 영적으로 믿어버린다면 보다 이상적이고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육은 무익하고 마음도 변화무쌍하니까 영으로 믿으십시오.

5. 철통같은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믿음이 파선되지 않습니다.(롬 1:17)

사도바울은 디모데에게 뭘 가르쳤는고 하니 선한 양심을 가르치고 믿음을 파선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딤후 1:18) 제발 믿음만큼은 파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동안 믿음을 파선한 자들은 마치 어떤 입장이고 하니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암초에 부딪히자 수영해서 나오던 중에 파도에 휩쓸려 죽은 사람의 입장과 같습니다.

배가 파선되듯 믿음이 파선되면 그 때부터는 모두 세상바다에 뛰어들어서 자기기술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가 암초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하듯 부딪히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고, 믿음에 철통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면 될 것이 아니라 실천을 불같이 해야 믿음에서 파선되지 않습니다.

6. 믿음을 성장 시켜야 합니다.

성장된 믿음을 갖지 않고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는 매일 의심만 하게 됩니다. 성장치 않는 겨자씨는 큰 거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다가 뭐냐? 될까 안 될까가 문제가 아니라 하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대개 신앙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이 믿음을 깨뜨리더라고, 자기에 대한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주님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신앙을 깨뜨리더라.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이 아닌 자기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앙이 깨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하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를 긍휼히 보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7. 의심하면 안됩니다.(약 1:6)

니느웨성 사람들에게 일어난 기적과 표적은 요나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 죽을 것인데 살았으니 이 얼마나 표적입니까? 다 거꾸러져 모두 죽을 수 밖에 없었고 그들의 운명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누구하나 막을 사람이 없었지만 마지막 으로 보낸 요나의 말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살아났지 안 믿었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자꾸 의심하면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사람에게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기>

*믿음이 흔들릴 때,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중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 실제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신앙의 반석이 되는 믿음 * 세 번째날 *

믿음과 실천

1. 믿음의 기반위에 반드시 실천을 해야 합니다.(히11:33)

만 명이 다 “아이구, 저런 바보”해도 한 사람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으면 이리로 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이렇게 합해진다고, 합해졌을 때는 “어? 맞는 길 갔네. 우리보다 먼저 앞에 와 있네. 이상하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만명을 지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믿음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주권을 줍니다. 믿음의 조건 세웠으면 그 다음에는 실제조건을 세워라. 이제 행동을 해 봐야 됩니다. 행동을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믿으면 100%, 그 다음 행동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믿는 것은 “주여! 믿습니다.”하고서 의심되는 것이 있다해도 그냥 씹어 넘기면 믿어집니다. 그런데 행동할 때 무엇이 안 되면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자기의 기술부족, 경험부족으로 잘 안될 때가 있는 것인데 자꾸 의심하면 안 됩니다. 못하면 못하는 대로 무조건 해 봐야 됩니다. 100개 중에 5개라도, 실제조건이 세워져서 그 사람에게 희망이 성립되고 새싹이 납니다. 절대 믿고, 그 다음에 행동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행동하고, 주님이 믿고 행동하고... 이런 믿음이 조건, 행동의 조건이 또 있어야 됩니다.

2. 믿음의 신용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신용을 꼭 지키는 성리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신용은 행동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대의 말씀을 믿고 시대의 보낸자를 믿고 실천하며 따라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가지고 움직이십시오. 말씀을 믿고 따라왔다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아주 큰 믿음이고, 이 행실이 아주 큰 행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잘 했는데 작은 것을 못 하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도 몇 번 하다보면 큰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고 실천하는 것이 있으면 그는 산을 옮길 수 있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은 것이 더 많습니까? 행동이 더 많습니까? 이 둘은 비중이 맞고 비율이 맞아야 합니다. 믿음은 시작하는 것이고, 행동은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거두어들인가”는 것을 알고서 뿌렸다면 매일 가서 가꾸고 매일 퇴비하고 매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니까 “아이구 이거 어렵겠다”하고 또 가물다고 “아이구 이거 어렵겠다”하면 되겠습니까? 믿고서 가야합니다. “산다!” “존재할 수 있다” “된다!!” 그런 믿음을 안 가졌으면 나도 오늘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잘 된다고 항상 마음을 먹고서 잘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3. 이제는 믿음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구약은 실천하기 위해서 4000년 동안이나 희망과 소망을 걸어두었으나 신약시대 때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못 실천하고 눈물겨운 역사를 끝마치고 억울하게 갔습니다. 너무 한 맺힌 역사였습니다. 우리들도 과거에 실천하기 위해서 관념적으로 수고하고 애쓰며 믿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으니 지금은 행동하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믿으라는 말씀이고, 지금은 행동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것은 행동하라는 시대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쟁이는 말만하고 있고 실천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쟁이가 되지 말고 행동쟁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은 꽃이라면 행동은 열매입니다. 꽃만 가지고 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실체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쓰다는 것입니다.(계10:1) 말은 달지만 행동은 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쓰기는 쓰지만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에게 흑자를 내고 우리를 존재케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골에 있을 때도, 사람들은 밤새도록 바람이 불면 알밤을 주우러 가는 데 나는 새벽에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보면 날이 샌니다. 기도하다 말고 알밤을 주우러 갈 수도 없어서 기도를 해 놓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를 해 놓고 하니까 주님께서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국가 세계까지 기도를 해주는 데...”그래놓고 가보면 알밤은 다 주워가고 없습니다. 알밤을 주우려면 기도를 포기하고 새벽부터 그리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기를 새벽예배를 5시쯤 가는데 가기 전에 등불을 켜고 밤새도록 떨어져 있는 밤을 다 주워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데 기도할 것이 뭐 있습니까? 내가 주워났는데 기도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늦게 가면 다 필요 없습니다. 일찍 가야합니다.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뛰라는 거예요. 구약 4000년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2000년 동안 역시 기다렸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 주겠다.”이제 수문을 열어주듯이 열어줬으니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행위의 시대”라 하지 않습니까? 행동의 시대, 행동하기가 참 힘들지만 계속 해 버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읽기>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공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약 2:12-20)

<생각해보기>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자라면, 실천을 하는 것은 그 다음 순서로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의 작은 실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믿음은 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은요?

*믿음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이며 그것을 극복한 사례나 방법이 있다면은요?

	날짜	2013년 9월 5일 목요일
신앙의 반석이 되는 믿음 * 네 번째날 *		
실천하려면 1.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엡 6:6) 겨울에도 방안에 있는 사람과 방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추운데 뭐하러 토끼를 잡겠다고 뛰어 돌아다니냐?” 하루종일 해 넘어갈 때까지 쫓아다니면 사람이 살이 얼마나 빠진다고, 그 눈을 먹어서 다시 살이 쫀다는데 그건 도대체 손해 가는 일이라고 어른들이 못하게 합니다. 옷 버리고 옷 찢고 신발 찢고 열고...그래서 잡으면 다행인데 못 잡으면 헛일 아닙니까? 어른들이 손해가는 것이라고 하나 그것이 아닙니다. 바깥에서 뛰는 사람들은 그렇게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와보면 방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 참 답답합니다. 나는 재미있어서 그 이튿날 아침 먹고 또 나갑니다. 그것이 섭리사 뛰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때 댄 것으로 건강하니까 그래서 하여간 사람은 움직이면 위력이 됩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것을 노동처럼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을 고역스러운 세계로 생각하면 정신세계부터 지쳐버립니다. 사람의 관이라는 것은 두 가지 중에 어느 관으로 생각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악평이나? 선평이나?” 라잖아요? 나는 어디 가서도 모든 환경을 재미있게 생각합니다. 기쁘게 생각하고 환희로 생각하고 복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무리한 것 같을 때는 그것을 다르게 돌리지만, 그런데 대개 보면 사람들은 찌드는 세계로 생각합니다. “하, 찌들어지는 상황들, 차를 타고 끼어서 너무너무 복잡하고...”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사람은 주관, 관이 잘못되면 관속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시체지 않습니까? 시체나 관속에 들어가지 성한 사람이 관속에 들어가겠습니까? 한 사람이 관속에 들어가면, 그것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관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관가는 대로 가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람이 끌고 가는 대로 가면 그것은 자기사상이 죽은 것입니다. 2. 실천할 때는 주관권 안에서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이하의 씨뿌리는 비유를 보면 옥토밭에서는 100배, 60배, 30배, 그러나 옥토 밭이 아닌 곳에서는 1배도 안 나왔습니다. 그 씨까지 버렸습니다. 뭘 때에 어디서 뛰어야 하나? 옥토밭에서 뛰어야지요. 그러므로 뭘 자리에서 뛰어야 합니다. 괜히 뛰지도 않을 자리에서 뛰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운동장을 10바퀴 돌기로 했는데 10바퀴 안에서 뛰어야지 10바퀴 벗어나서 뛰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테이프 끊고서 11바퀴부터 막 뛰는 거야. 그때부터 몸 풀렸다고 뛰면 무슨 소용있습니까? 10바퀴 안에서만 뛰어야지. 이와 같이 자기 주관권 안에서 뛰어야 하고, 필연적으로 꼭 뛰어야 될 그때에 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침만 뱉혀 뺨어가면서 된다고 준비하고 “잘 뛰어야지, 잘 뛰어야지.” 하다가 1년 12달 그냥 지나갑니다. 그게 바로 각오만 갖고서 행실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도 큰 병중의 하나입니다. 그건 병원에서조차 못 고칩니다. 3. 하나씩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복 받으시오!” 하면 “아멘”해서 축복을 받은 것은 집이 넘어가고 있을 때 떠받쳐서 안 쓰러지게 해 놓고 “이 집이 쓰러질 것인데 쓰러지지 않게 되었으니 복 받아” 하는 입장과 같습니다. 쓰러지는 집을 떠받쳐주면 한 동안은 살 수 있으나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쓰러져 가는 집을 하나씩 뜯어내고 모든 구조를 새로 갈고 터전을 넓히고 기둥도 하나씩 다시 박으면서 집을 다시 지어서 근본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한 동작 한 동작 복 받을 짓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고 하면 읽는 것이 복 받은 일 중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복을 주는 것이지 축복만 넘죽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몸부림치고 애쓰고 수고하며 인생을 만드는 복 받는 비결의 길을 계속 걸어오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한 동작 한 동작이 되었습니다. 지상천국도 한 동작 한 동작으로 건설되는 것이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4. 실천할 때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늘나라가 당장에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들어 시간이 흘러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고 천국은 또 한 어떻게 이루어지는고 하니 마태복음 13장 31절-32절을 보면 한 농부가 자기 밭에다 겨자씨 한 알을 심어 놓은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중시해서 천국이 당장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안드레.... 두 사람, 세 사람, 열 사람, 스무 사람, 백 사람, 이백 사람... 이렇게 점진적으로 커 가는 모습이 매일 쳐다봐도 표가 잘 안날 정도로 변져 나갔습니다. 나무가 크는 것이 잘 안보이고 시침이 가는 것이 잘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간만큼 커 가고 있습니다. 눈에 금방 보이게 크지 않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눈에 확 보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눈에 확 안보이게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깨우쳐 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다 크게 되면 공중의 새들이 수백 마리 수만 마리가 깃들이게 됩니다. 하늘의 섭리사 새로운 역사도 이러한 나무와 같이 자라감에 따라 커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깃든다는 것입니다. 5. 실천할 때는 몸부림을 치면서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큰일 하는 사람들은 본래부터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본래는 무능해서 “이렇게 하다가 죽게 되겠구나” 하다가 마지막 눈을 부릅뜨고 몸부림치며 “이렇게 죽긴 억울하다” 하고서 죽는 것보다 낫다“하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친 사람들이 서울 시내에다 빌딩 지어놓고 큰 상점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본래부터 타고난 것이 없습니다. 하도 밑바닥에 깔리니까 죽기는 겁나고 몸부림은 치다보면 ”이런 마음을 가진고서 다른 것을 하다보면 내가 뭘 해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다보면 뭘 해야지. 밥은 먹겠지“하고서 큰 마음먹고 뛰어든 겁니다. 6. 한계를 뛰어 넘어야 합니다. 내가 불을 차 봐도 어느 한계까지는 더 이상 찰 수 없고 힘이 들어 “아이고, 이 이상은 절대 안 되겠다. 무리다”했는데, 그러면서 뭘 바랬는고 하니 ‘암만 차도 다리가 안 아플 정도로 가면 좋겠다.’ 그러면서 국가 대표선수들 이해를 못 했어요. 저렇게 차고서 다리가 아파서 어떻게 사나? 이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을 넘어갔는데 나중에 가서는 4시간, 5시간 넘어가니까 그때는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차고 나서부터는 무릎이 쭈시지 않고 안 아프더라고, 이와 같이 일을 많이 하려면 한계를 넘어가야 합니다. 어느 한계를 쭈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한계라는 것에서 넘어가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4차원까지 가야합니다. 그것을 넘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다 이해가 됩니다. “아하, 이 단계이구나.” 나는 무한정의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나를 보고 사람들이 지쳐서 못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쳐서 금방 못할 것 같아도, 저 보세요. 지쳐서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놓으니까 내가 불 찰 때 날보고 “우리보다 불을 더 많이 넣었으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아이고, 그래서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한 거야” 그랬습니다. 백만 원이 든 돈보따리 주워 가는 사람이 1억 주워서 가는 사람에겐 “돈 보따리가 무거워서 참 힘들겠다.” 해보세요. 천억보다 백억이 무겁지 그 만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 남긴 사람은 더 힘들고 더 피골상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 윤기가 났습니다. 왜? 더 일의 보람과 복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 믿음을 실천하려면 어떤 자세로 해야 할까나? *위의 내용 말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무엇이 필요한지 적어보세요!		

		날짜	2013년 9월 6일 금요일
신앙의 반석이 되는 믿음 * 다섯 번째날 * (믿음의 사람들)			
노아는 아담 타락이후 1600년 지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건 세우기 위해서 부른 자로 아담 때에 깨어져 나간 믿음의 역사를 대신 조건 세워 복직시킨 사람입니다. 하지만 노아 1차 믿음은 성공했지만 2차적 믿음에서 깨져 나갔습니다. 1차적으로 방주안에는 들었습니다. 이 시대 방주는 복음입니다. 2차적으로 아들인 함이 아버지의 행하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후아담격인 노아를 자녀가 절대 믿어야 했는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함, 야벳, 셈 중 가장 중심권이 될만했던 함이 절대 믿음의 기준을 세워주어야 했는데 1차 방주에 들어가는 생명의 구원에 는 성공했지만 2차적 땅의 승리로 포도농사 지으며 살아가는 세계에서 함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에서 걸렸습니다. 장막에서 노아가 벗은 몸으로 하체를 드러내고 있을 때 함이 이해하지 못해 덮여주려 함으로써 믿음이 깨졌습니다. 아무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어느 시대든 담안지 주고 시험 보는 시대는 없습니다. 믿음만큼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믿을 만큼 해 놓았습니다. 노아 때문에 방주로 구원받아서 자기 살려준 사람을 무조건 믿어야 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믿음이 없어 1600년 역사를 깨뜨려버렸습니다. 노아의 자녀들은 아버지로 인해 일단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방주에서 내려와서 자녀권을 중심한 뜻을 펼쳐야 했습니다. 두 번 째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복지 역사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일차적으로 애굽을 나와 신광야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복지 역사는 자녀권의 역사요, 후손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고 의심함으로 인해 가나안 복지에 못 들어 갔습니다. 이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은 여하간에 모든 것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하체를 덮었다 하는 것은 여기에 사랑 문제가 관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서는 못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사랑 문제는 한참 잘 못하는 일인줄 알고 일단 덮어서 가리고 갔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이었는데 사명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능력이 더 나갈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자녀들이 안 믿었습니다. 자녀들이! 그 중에서 누가 시작했는지를 보니까 함이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함이 “저것 보라!” 그래서 “너는 종의 종이 되길 원한다”고 하며 함을 저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본래부터 믿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나무목각으로 우상을 만드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대승리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철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u>얻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믿었다!</u>”고 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분명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었을 때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거든, 화를 받은 것보다 축복받은 것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분을 안 믿느냐는 겁니다. 철통같이 100% 그런 분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것을 보아서라고 했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현재의 자기 인생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또 현재를 잊어버리면 미래의 꿈을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기에게 역사한 것을 봐서 현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모든 일을 나에게 해주신 것을 봐서 나는 100%믿을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역사하신 것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역사해서 우리가 환경을 얻어왔습니까? 그래서 나는 100% 믿는 것이 아니라 1000%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기도가 끝난지 오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결심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깨닫고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일을 두고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의심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못 가는 것이지 별수 있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한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곧 그 믿음을 지킨 주님의 세계를 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근본된 믿음의 원리를 찾아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체험을 했고 겪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음성을 평소에 듣고 했기 때문에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하니 믿어라!” 하는 것은 다 안 믿어집니다. 아브라함 같이 믿음을 지키고 이겨나가면 - 마지막에 이겨놓은 다음에-믿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이긴 다음에는 그 동안 의심하고 뒤흔던 것이 다 풀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뜻을 세우는데 있어서 부르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에는 큰 뜻이 몇가지 있는데, 그가 민족적인 사람이었고, 믿음의 조건과 그 당시의 현실의 조건을 그 나름대로 세워주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세운 믿음의 조건이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 믿음으로 의인되게 하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었으므로 의인되게 하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은 사람들은 의인의 단계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이 부를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됩니다. 그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믿음이나? 그때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믿음의 조건을 세웠는고 하니, 가나안 복지를 탐지하러 갔다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악평했으나 그는 악평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세계다.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며 선포를 했습니다. 그 당시의 식으로 그 때의 믿음의 조건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믿음의 조건을 세운 핵심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가나안 복지를 정탐한 사람들이 실체가 그렇지 않아서 악평한 것은 아닙니다. 실체는 좋게 돌아가고 있었는데도 저희들 자체가 믿음이 부족해서 악평하게 된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이 보았는데도 믿음으로 보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중심으로 보았습니다. 믿음과 실체의 조건을 세운 이들을 중심으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기가 막히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고 믿어주는 자에게 더욱 굳건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군사도 많았고, 창도 많았고, 활도 많았고, 검도 많았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를 잡기 전 어렸을 때부터도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만사형통입니다. 백만 대군이 필요하면 동원시켜 주시고 십만 대군이 필요하면 십만 대군을 동원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날 따라 우연같이 칼자루가 긴 놈을 가지고 싶어서 가지고 갔는데 적이 자기보다 칼자루가 짧은 놈을 가지고 나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놈이 먼저 죽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다 돌려버리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정치를 해나갔으니 백성이 안 좋아할래야 안 좋아할 수 없는 지도자였습니다.			
<생각해 보기>			
구약의 중심인물	믿음의 힘은 어디서? 왔을까?	본 받을점?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신앙의 반석이 되는 믿음 * 여섯 번째날 *

앞산을 없애 달라는 기도 = 앞산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놈의 산, 내가 믿으니 없어져라” 그런데 산이 아닌게 아니라 움직움직했습니다. 그때 눈물이 줄줄 쏟아지며 아주 기뻐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주셨구나! 이 지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정말로 참된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눈을 떠져서 수없이 옮겨지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감격했습니다. 산이 움직일까봐 산과 같이 죽을까봐 ‘지혜롭게 행하자!’하고 그 산에서 뽀르르 내려와서 건너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꼭대기에 올라가 앞산을 쳐다보며 기도했습니다. 어제까지도 움직움직하던 산이 끄덕도 안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하셨을까? ‘예수님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구덩이만큼 있었는데 시범적으로 산을 하나라도 옮겨 놓고 갔을텐데... 예수님은 능력 있는대로 다 행하지 않고 가셨나?’ 이런 저런 생각을 다 해보니 “이것은 제자들이 할 일인데... 제자들은 산을 옮길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안한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람’을 옮긴다.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 왜 이렇게 해 놓았을까? 결국 비유론 말씀과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계17: 9을 보면 “지혜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라!” 했습니다. 일곱 산은 일곱 왕...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구나.. 믿음이 있으면 사람을 옮긴다는 이야기이구나!’ 이미 메시아를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은 고정관념에 꼭 차 있는 구약권의 사람들을 신약권으로 옮겨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 함은 어마어마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지만 그것이 어느 나무보다 큰 나무가 돼서 어마 어마하게 웅장한 나무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전진하고 번창하며 크는 나무가 겨자씨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자는 산을 옮길 수 있다.. 구시대의 고정관념과 새시대의 고정관념에 꼭 차 있는 사람을 이끌어서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갖다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첩관 같고 그 실천력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무신론, 유신론의 고정관념에 빠져 있고 물결과 각종 각종 인생살이 뿌리가 박혀 있는 많은 이방 사람들과, 구약 4000년 동안 찌들고 그로되게 박힌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신약권애다 옮겨 놓았습니다. 그들의 산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믿음! 사람이 믿어야 움직여지고 자꾸 꿈틀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다가, ‘이거 그렇지 않지!’ 하기 시작하면 당장 안 해줍니다. ‘된다, 된다! 이런 절대적 역사인데 안 될 리가 있나?’ 하면서 나가면 자꾸 감동되기 때문에 꿈틀거리지고 되고 절대적으로 행동해서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망권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권으로 옮겨 놓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절대적인 말씀의 믿음과 중심권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산들이 옮겨진바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하이고 내가 하기는 하지만 안 될 것을 알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될 것을 왜 합니까? 하지 말지! 사람이 벌써 긍정을 할 때는 반 이상 화살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그 산들을 움켜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움켜져야 합니다.

신앙인으로 나의 믿음의 점수가 몇 점인지 체크해보자^^*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 본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한다 1 2 3 4 5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기에 절망하지 않는다. 1 2 3 4 5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나는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나는 실천에 강한 사람이다 1 2 3 4 5

믿음은 꼭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믿음을 하나님의 큰 은사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믿음을 가지고 행했을 때 이루어진 경험이 있다 1 2 3 4 5

나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서도 나를
신뢰하신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평가해 보세요. 각 문항마다 체크한 점수를 합산해보세요

나의 점수 (점)

사람들을 보고 놀라는 것 세가지

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놀라는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엄청난 말씀을 듣고서 안 놀라는 사람들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놀랄 일입니다. 사실 실천하기란 어렵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도 깜짝 놀라게 해 놓아야 내 편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 뒤집어 놀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주님도 우리의 실천을 보고 놀라게끔 그 정도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을 많이 놀라게 해 주었습니다. 하늘이 나를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나는 기존성에서 배웠던 진리관과 하나님의 관이 너무도 다른 것을 깨닫고 많이 놀랐는데 역시 하늘도 나를 보고 놀랐습니다.

*현재 힘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해 주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다짐의 편지를 써보시다 *^^*

*지금 자신이 가장 실천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요?(바로 이 순간 실천을 해볼까요?)

일편단심

비바람 몰아치고
눈보라 휘날리며
세월 간다고
산이 물 되어 흘러가고
물이 산 되어 솟아나라
환난풍파 몰아쳐도
여전하다 그 마음
여전하다 그 모습